

특별취재

김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

김제시 관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분실된 법인 통장으로 돈을 인출해 주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군산에 소재한 (주)미온과 김제지역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1일 운영자금 등이 들어있는 법인 통장을 분실해 계좌 개설은행인 군산 임피면의 금강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재발행 받았지만, 같은달 31일 A모씨가 이 분실된 법인 통장을 가지고 김제 B새마을금고에서 2천만원의 인출해 달아났다.

그러나 B새마을금고는 이 과정에서 분실된 법인 통장이냐는 업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을 인출해 준 것으로 알려져 피해 법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미온 CEO 이사는 "새마을금고의 업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으면 분실된 법인 통장에서 돈을 내출 수 있는지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B새마을금고의 업무과실과 따른 명백한 금융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EO 이사는 또 "우리 회사 법인 통장 개설은행과 분실된 통장에서 돈을 내준 은행은 똑같은 새마을금고라며 "같은 전산망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우리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업무 확인 중에 있다"며 "특별히 언론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MTB회원 마실축제 홍보

부안MTB회원들이 자전거에 마실 깃발 꽂고 제주황산자전거길 달리며 1박2일 부안마실축제 홍보를 펼쳤다.

부안 산악자전거 동호회 부안MTB 19명의 회원들은 지난 일 오전 7시 제주황산을 출발하여 이른날 오후 4시까지 제주 섬자전거길 234KM를 중주하며 마실 축제 플래카드와 포스터를, 회원들 가슴과 등판에 부안마실길 글씨가 선명한 조끼를 입고, 애마 자전거에 깃발 2개를 달고 부안마실길과 축제를 알렸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성산일출봉, 감녕해수욕장 등 가는 곳마다 관광객들에게 마실 축제 전 단지를 전달하며 제1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및 부안 마실 길 알리기 작업에 적극 나서 부안마실길전에 앞장섰다.

부안MTB(회장 이대연)는 2002년 결성되어 자전거 무료교실운영과 군 지정 부안마실길 안전자키팀이 활동 및 타 지역 라이딩 시 부안마실길홍보 조끼와 깃발을 부착하고 참여하는 등 순수 민간 부안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금선화공원묘원과 간담회

김제시는 14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도시재생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과장 및 실무자 12명과 (재)금선화공원묘원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재)금선화공원묘원축이 추진하고 있는 구·국도 1호선에서 진입도로 2.4km 구간에 대한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심도 높은 의견을 나누었다.

(재)금선화공원묘원측은 그동안 추진했던 편입토지의 현황 측량 및 주민협의, 토지구공문발송, 1차 주민설명회와 광주고등학교 조경권고안의 이행 조건인 분묘 이전 대상 3기 중 2기를 이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부서에서는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년 10월까지 진입로 개설 및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금선화공원묘원 조성의 쟁점사항인 농어촌도로의 개설에 있어서 토지수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추진해야함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종규 부안군수가 2017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 예산확보 총력

세종·대전 정부청사 찾아가 상서·보안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현안사업 건의

김종규 부안군수가 2017년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부처를 동분서주하면서 발품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 군수는 14일 정부 세종·대전청사를 찾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새만금 개발청, 산림청 등을 찾아 상서·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2017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상서·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마포·계화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능성 양잠사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찾아 도시재생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운흥·신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으며 환경부를 방문해 부안도시 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김 군수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젓갈식품 제조·가공·연구 거점단지 조성사업, 산림청을 찾아 변산경관특화립 조성사업과 지방정원 타당성

부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개발청 전병국 차장을 만나 부안지역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개발 방안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민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 요소"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 어디든 어느 때든 상관없이 버선발로 달려가 적극 대응해 부래 민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센터, 단풍미인쌀단지 5곳 토양 양분 관리 힘써

시비 처방 등 관리 지도

정읍농업기술센터가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쌀단지 5개소에 대한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 양분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술센터는 "고품질의 단풍미인쌀 생산을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한 후 토양관리 시비처방서를 발급, 농경지 양분 정도에 따른 알맞은 시비량을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토양 중 질소비료 사용량이 많아지면 쌀의 외관상 품질이 좋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밥맛이 저하된다. 따라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질소비료의 사용 기준은 토양검정에 따른 논 특성과 비료 추천량을 고려해 시비량을 가늠해야 한다. 한편 토양검정은 정읍지역 농업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토양 내 유기물



토양검정은 토양 내 유기물과 질소, 유효인산 등을 분석하여 알려준다.

과 질소, 유효인산 등을 분석하여 작물의 맞춤형 양분관리에 최선을 다해 정읍의 대표브랜드에 걸맞는 단풍미인쌀의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물의 맞춤형 양분관리에 최선을 다해 정읍의 대표브랜드에 걸맞는 단풍미인쌀의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예술제 내일부터

이틀간 시화·미술전 등 다채롭게 열려

정읍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순수예술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정읍예술제가 '소통하는 예술인, 예향의 품으로'를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스무 해 짝을 맞는 이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지회장 오오근)가 주관한 것으로 정읍시예술회관과 아이공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정읍지회는 "정읍예술제는 한토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한 작품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순수 예술제로서의 의미가 크다"며 "시화와 미술, 사진전 등 합동 회원전과 무료 사진 포토전, 주역의 막거리, 어린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읍시예술회관 아이공연장에서 펼쳐질 정읍시 오솔길 푸른음악회(우천 시 정읍시예술회관 대공연장)와 서래봉악단, 청소년 및 직장인 락그룹 등 라이브공연도 준비돼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는 전국 단풍 무용경연대회(제2회)와 읍면동 농악경연대회(제13회)도 마련돼 신명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사)한국에총 정읍지회는 미술과 음악, 사진, 문학, 국악, 무용, 연극 등 7개 지부 350여명의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활발한 활동으로 한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평선 광활햇감자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이다

지평선 광활햇감자축제 내일 개최

김제 광활초서 1500여명 참석

제9회 지평선 광활햇감자 축제가 16일 광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전국 최고의 시설하우스 감자 주산 단지를 자랑하는 광활햇감자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한 간직한 토양에서 자라 전국 봄 감자 중 단연 으뜸을 자랑하고 있다. 해마다 4월이면 개최되는 '지평선 광활햇감자 축제'는 주된 1,000여명, 출항인 등 500여명이 참여하여 해마다 성대히 치러지는 지역 행사로써 그간의 다양한 경험으로 해가 갈수록 알차고 볼거리 있는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로, 광활햇감자를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

는 시식코너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감자저가매장터를 운영하는 등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태평무 한춤공연을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품종 길놀이, 감자 품평회, 광활만민 노래자랑, 유명가수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여, 광활만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채건식 광활만민장은 "전국 최고의 생산량과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지평선 광활감자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리고, 축제를 통해 광활감자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모멘트가 되는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product images, promotional text,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d highlights the wine's quality and offers various gift sets for purchase.